



안국선원은 7군단 호국상승사에 범종각을 건립·기증했다. 사진은 타종하는 모습.

●간화선 생활·대중화 '일등공신'

재가불자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유명한 안국선원. 일년 두 차례 실시되는 안거 때는 불자들이 가득 차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다.

"바른 불교를 해보겠다고 이 절 저 절 다니기를 십수년, 안국선원에서 비로소 가야할 길을 찾았어요. 이 법당에 있는 불자들은 그렇게 모였어요. 이제는 '이 길 따라가면 내가 찾던 불교가 보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선원 총신도회장 천양자(64·무량심)보살이 가슴에 물어두었던 말이다. 여기저기를 찾아 다녔지만 원하는 가르침을 얻지 못해 답답했던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준 곳이 바로 안국선원이었다. 천 회장은 안국선원에서 자체간화선 수행법을 접한 후, 도반들과 함께 화두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안거라고 하면 대부분 스님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안국선원은 이같은 통념을 깨고 재가불자 안거를 진행함으로써 재가불자들도 간화선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초심자 과정을 마친 신도만 참가할 수 있는 안국선원의 안거대중은 1천5백명을 넘어선다. 올해 안거때 방부를 들인 불자 수는 부산 안국선원 6백여명, 서울 안국선원 8백여명, 창원 안국선원 1백30명이었다.

안거 방식은 불자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운영된다. 선원에서 오전·오후 각각 2시간, 가정에서 2시간 등 하루 6시간으로 정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배려했다. 하루 6시간씩 화두드는 안거대중은 선원장 수불 스님의 점검을 받으며 웅망정진한다. 스승과 공간이 마련됐으니 훌륭한 수행영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안국선원이 재가불자들의 최고 참선수행도량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안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안국선원에는 4백명 이상이 늘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재가불자들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놓지 않는 점이 안국선원의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신도회 산하 모임에 자동 배속

안국선원 신도들의 자긍심은 상당히 높다. 아무나 신도가 될 수 없는 까다로운 등록과정과 사찰운영 및 봉사활동 참여, 잘 짜여진 신도조직체계 등에서 저절로 자부심이 몸에 밴다. 수행을 통해 얻는 높은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에 하나다.

먼저 안국선원에 신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계종에서 정한 신도 기본교육 외에 행해지는 초심자 과정의 별도교육이 그것이다.

초심자 과정은 어느 사찰과 달리 초심자법회와 집중수행으로 이뤄진다. 일단 화두공부를 신청한 불자들은 초심자법회에 참가해 수불 스님의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이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안국선원에서 1주 내지 10일 가량의 집중적인 화두공부를 해야 한다.

초심자들은 매일 수불 스님의 점검을 받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법문을 받을 수 있다.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0%정도만이 간신히 '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출



안국선원은 재가불자들에게 화두수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화선 수행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재가불자들이 서울 안국선원에서 안거에 들어 웅망정진하는 모습.

집중수행·점검으로 간화선 지도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2 구룡사
- 3 능인선원
- 4 부산 삼광사
- 5 안국선원
- 6 한마음선원

간화선이 불자들의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안국선원.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수행 열풍의 진원지를 따라 가다보면 안국선원(원장 수불)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을 통한 포교는 일찍, 서서히 빛을 발해 왔다.

1989년 10월 안국선원이 부산 진구 가야동에 개원할 당시 첫해 신도수는 2천여명. 15년만인 올해 부산 안국선원은 9배가 늘어난 1만8천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형사찰로 자리매김했다. 또 96년 서울과 99년 창원에 선원을 개원해 각각 7천명, 1천명의 신도가 안국선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 미국 L.A.와 휴스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분원을 설립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의 경우 96년 개원당시 서초동의 80평 임대건물에서 2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법회를 열었으나 2001년 가회동에 600여평 규모의 선원을 개축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안국선원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간화선 수행을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주효했다. 재가불자에 대한 갈등이 안국선원에서 간화선과 스승을 만났으므로 비로소 풀린 것이다. 재가불자 안거를 실시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행하고 싶으면 안국선원으로 모이랴'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02)732-0722, (051)892-9803, www.ahnkookzen.org

현대인 생활패턴에 맞춰 하루 6시간 안거 진행

'신도' 되기 어려워... 장학사업 등 대외활동 활발

되는 인원은 매월 50~80명에 달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 신도용 법복을 입을 수 있으며, 안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신도가 되면 연명 및 신앙 경력 등을 고려해 총신도회 산하 각종 모임에 자동으로 배속돼 수행과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신도회는 고선회, 도립회 등 7개 모임으로 구성된 거사회와 대각회, 성불회 등 30개의 모임을 거느린 보살회로 구성돼 있으며, 선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총신도회는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 건립봉사를 비롯해 해외분원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봉사를 총괄하는 등 사찰운영을 주도한다.

신도들은 이 외에 다도회, 꽃꽂이회, 산악회, 합창단 등의 특별 활동을 통해 여가 및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총신도회는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불국토 지원, 보리방송문화상 상금전액 후원, 12사단과 7군단 범종각 건립봉사 지원 등 대외적인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국문화원·해외분원 등 '세계속으로'

안국선원은 2001년 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아 '(재)조계종 안국선원'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를 시도했다. 내년 4년 개원 예정인 부산 안국문화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안국선원의 변화

를 감지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기공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건립 중인 안국문화원은 3천6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총 3개동의 종합불교회관이다. 250평의 대웅전은 1천여명이 동시에 정진할 수 있는 규모다.

안국문화원은 불자들의 수행·수행공간은 물론, 교육·사무공간, 문화생활공간을 갖추고 간화선과 불교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도심속의 수행·교육·문화 공간으로 거

듭나기 위해 간화선 불교대학, 각종 불교강좌,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개교하는 불교대학은 간화선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불교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속에 알리기 위한 해외분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설립돼 있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3개 분원 외에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내년 상반기중 새로 분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원활한 해외포교를 위해 국제선연구원을 중심으로 영문학사 발간, 법문 번역, 외국인을 위한 기초반 개설 등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전·현직 대학교수, 문인,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안국선연구원은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 확산을 위해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안국선원은 꽃꽂이, 합창단, 다도회 등 특별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봉사·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다도반의 강습 모습.

인터뷰

"사찰의 힘, 신도들에게서 나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신행도 중요하지만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수행이 빠지면 반쪽의 불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재가 불자를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은 참불교를 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계종 종지에 따라 간화선을 근간으로 하는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재가 불자들을 이끈 것도 이같은 신념에서다.

수불 스님의 생각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포교의 길을 나선 이상 불교의 참맛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간화선의 대중화·생활화라는 카드를 빼놓았다.

"재가불자도 간화선 수행을 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참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보고 불

성을 닦는데 남녀노소, 종교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간화선이라는 바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택할 이유가 없지요."

수불 스님은 사찰운영에 있어서도 신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사찰 운영은 물론 크고 작은 모든 봉사를 신도들의 힘으로 이루도록 해, 안국선원 신도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대단하다. "사찰의 힘은 신도들에게서 나온다"는 스님의 믿음은 그대로 적중했다.

수불 스님은 수행자에게 있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만큼 큰 복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도 마찬가지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야 참봉자가 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스승이 있어야 참선이든 염불이든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들도 반드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길 바랍니다."